

사설

종교단체의 면세 이유

조세정책의 형평성은 자본주의 국가를 안정적 기초 위에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하기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책의 원칙에 따르면 종교단체들의 소득에 대하여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견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 양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것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발상이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금을 거두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공공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사회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종교 단체들의 목적은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조세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종교 단체들은 그 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자양을 공급하며, 또 갖가지 복지 사업 등을 통하여 공공의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국가가 도맡아서 하려 한다면 종교단체들이 할 때보다 더 많은 세원을 그 쪽에 소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조세상의 혜택을 통해 종교단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가적으로 이득이 된다 할 수 있다.

국민의 자발적인 영위는 단지 경제적 측면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국가

구성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보다 큰 차원의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효율성 면에서도 관 주도의 사업보다 다양한 종교단체들의 활동이 보다 뛰어날 수 있다. 그러하기에 가능한 종교단체 등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 정부는 눈앞의 조세 수입 증대에 매달려 종교가 담당하고 있는 공적 기능을 저하시키는 조세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 모든 국민이 지적하는 조세 정책의 문제는 종교단체에 주는 조세 혜택이 아니라 탈세에 의한 사사로운 부의 축적이라는 것을 바로 보고 공평한 과세가 시급히 필요한 곳에 눈을 돌리기 바란다. 특히 불교단체의 부동산 양도는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용이 많기에, 불교계는 오히려 부동산 양도에 의해 재산권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거기에 무거운 세금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종교계가 더욱더 올바르게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 정책을 편다는 데 원칙이냐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는 근원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불교단체들이 지닌 부동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거기에 합당한 보상 조치들도 이번 기회에 검토되기 바란다.

6·25 온겨레 평화대행진

'화해와 평화'는 올해 한국 종교계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지난 3.1절 '화해와 평화를 향한 온겨레 손잡기 운동'을 함께 펼쳤던 7대 종교단체가 이번에는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 '온겨레 평화대행진'을 벌이려 한다. 더 나아가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국제적인 구호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쟁의 공포를 겪지 않고서야 평화의 소중함을 알기 어렵다. 지난 세기 우리가 겪었던 비극, 식민통치의 억압과 6.25전쟁 그리고 분단의 아픔은 한민족을 세계 제일의 평화회국 민족으로 만들어 왔으며, 지금 종교계가 앞장서고 있는 '화해와 평화운동'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6.25전쟁은 반세기 가 지났으면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란 인식이 깊다. 철저한 단절의 상징인 휴전선 철조망이 그렇고 상존하는 남북간 침예한 대립이 그렇다. 세계사 또는 한국사 속에서 6.25가 갖는 의미와 역사성의 규명 역시 분단 상황에서는 제대로 결론 내리기 어렵다. 이런 그 모든 갈등과 대립을 털고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

다행히 남북은 공연한 적개심만을 불태워 왔던 시기를 지나 오래 전부터 서로가 만나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 때로는 웃으며 빈번히 만나기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히며 등을 돌리기도 했으나 거듭되는 만남은 그 횡수만큼 화해의 가능성을 높여주며 마련이어서 이제 남북 정상간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온겨레 평화대행진' 등 화해와 평화운동은 남북간의 행사가 아니다. 북한인들에게도 참여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어서 오라' 손짓하는, 그래서 언젠가 그들도 함께 할 날을 기대하고 있다. 남북이 손잡는 그 날은 곧 세계의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날이 될 것이며 한민족은 세계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1저항 정신을 화해로 성숙시키고 갈등의 상징이었던 6.25를 평화의 밑거름으로 승화시키는 일은 어쩌면 종교인들이 당연히 앞장서야 할 일인지 모르나, 때때로 저항 중으로 버린 빈 자리에 인도주의와 관용, 자비심과 사랑이라는 좀더 고요된 감정을 채워 넣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종교인들의 몫인 것이다. 불자들의 평화대행진 참여를 기대한다.

올해 벼두 귀국하는 길에 이집트 소아시아 그리스 일대를 돌아보았다. 이집트에는 기원전 3천5백년 이래의 고·중·신 왕조의 이집트 폐허들이 남겨졌고, 그리스도 고대의 폐허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스의 오늘은 그리스정교만이 판치고 있었다.

그곳에서 올림포스산에 가지 못했다. 눈이 쌓여 있었고 길도 험악했다. 예로부터 그곳 사람들도 그 산에 가까이 가는 일에는 무척 주저한다.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처음 일정보로는 그 산을 꼭 보겠다 했는데 현지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올림포스산에는 주신(主神) 제우스와 다른 신들이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산자락 어디에도 신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산 전체가 신전이었다.

그대신 올림피아에 가기로 했다. 그 곳도 여러 곳의 일정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

내가 간 올림피아는 물론 올림포스산이 아니다. 그 산은 그리스 북쪽이고 올림피아는 서쪽에 있다. 아침 7시 아테네를 떠난 기차는 오후 2시에 도착했다.

그리스 본토에서 페르페네소스 반도 서북쪽이니 꽤나 멀다. 그 일대가 아테네와 대립했던 스파르타 지역이다.

고은 칼럼



고은시인의 불교계와 사죄에 대한 날카롭고 따뜻한 칼럼을 매월 1회 연재합니다. '고은 칼럼'은 고은시인의 문학과 불교사상과 삶을 통찰한 글로 같은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시인·본지 논설고문

문화올림픽을 제창한다

스포츠축제가 된 것이다.

그리스는 이 경기의 발상지라는 공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곳의 가장 큰 항공사는 선박왕 오나시스가 정부출자를 이끌어내어 장엄한 올림픽항공이 다. 그밖에도 올림픽이라는 이름의 기관이나 시설이 적지 않다.

그런데 고대올림픽 축제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어느 날로 정해지지 않고 그때마다 시기를 정했던 것이다. 대략 8월 6일부터 9월 19일 사이의 보름날이 심상이었다. 이것은 올림픽 주기(週期)의 태음력과 관련이 있다.

이 무렵이면 더운 여름이다. 대체로 보리 수확과 탈곡이 끝나고 포도수확도 여지간히 끝날 무렵의 농한기이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름이 새해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올림픽축제가 거행되는 때는 7월과 무더위가 비껴간 때이며 지중해 항해의 적기이기도 하다. 배가 잘 다닐 수 있어야 이오니아 지방과 예게해 여러 섬들의 선수가 모여들 수 있다.

본래 이 경기는 8년마다 열렸다. 8년의 주기가 농민이나 목축생활에서는 삶의 중요한 단위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에 10년 단위로 같은 것이다.

이 8년마다의 경기가 뒷날 4년제로 바뀐으로써 경기의 지속성을 강화한 사실이 오늘에 이르렀다.

고대 그리스올림픽이든 근대올림픽이든 그것은 승리 혹은 승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고대 그리스사람들에게는 신과 영웅들을 이상으로 삼고 자신들이 거기에 속해있기를 염원했다. 불패의 체력과 남성적인 힘, 그리고 파란만장의 역정을 찬미하는 일이야말로 그들에게 삶의 최고형식이 되었다.

일단 경기에서 승리자가 되고 1등을 차지하면 토지와 가축, 노예 그리고 재물을 차지하게 되고 조상의 무훈(武功)에 버금가는 명예를 얻는 것이다.

이처럼 이기는 자를 위한 경기는 몇가지 기원설을 가지고 있다. 제우스의 아들 중 가장 힘이 센 헤라클레스가 간악한 아우개아스왕을 물리치고 나서 제우스를 위한 신역(神職)을 정하고 4년마다 제전을 거행할 때 여러 종류의 경기와 격투 등의 시합을 시

작했다 한다.

인류가 생겨난 이래 아름다운 공동체 또는 협동사회를 만들어낸 경향이 있지만 인류의 생존방식 자체가 힘의 대결이었다. 그래서 적자생존의 법칙은 무자비했다.

모든 스포츠경기도 상대 또는 적을 규칙에 의해서 쓰러뜨리는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언제나 이기는 자의 축배와 지는 자의 고배를 갈라놓는 다.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경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근대올림픽의 세계대회에서 수많은 기록경신의 영광을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림픽의 개최국이고 10위권 이내의 놀라운 성적을 국내 외에 파시하기도 했다.

외국에 나가면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는 대중적 위상이 생기기에도 했고 어느새 그런 기억들이 없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같은 스포츠경기는 아무리 고상한 운동 정신으로 강조하더라도, 언제나 그 성화는 그리스신전에서부터 인도되어 오는 성스러운 제제의 불이더라도, 겉으로는 올림픽위원들의 기사적이며 신사적인 위풍이 그럴싸 하더라도, 주최국의 대통령이 참석하고 참가국의 수상이 참석하더라도, 그 경기는

이기는나 지는나, 사느냐 죽느냐 라는 극한상황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현실은 언제나 이긴 자의 것이다. 진 자의 얼굴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많은 승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은 우선 그들의 상대를 물리친 존재들이고 그들에게 진 선수들도 수많은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올라온 사람들이다. 한 승자는 많은 패배를 딛고 일어선 것이다.

이렇듯이 누군가를 싸워 이겨야만 되는 올림픽축제는 그 세계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슬픈 사회원리를 반복하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 문화의 만남

그 속에서의 우정과 평화

'문화의 축제'를 열자

이기는 자만이 아름다운 것. 1등만이 찬란한 것으로 될 때의 수많은 패배자들을 그 사회와 문화는 포용하지 못하기 십상이다.

나는 이러한 근대올림픽에 요구되는 인간의 의지, 기술 그리고 힘의 미학이 다른 쪽에 있어야 할,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않고 대결하지 않는 문화올림픽을 제창한다. 승리를 위한 이기적 긴장과 투지가 아니고 인간은 얼마든지 비경쟁적인 우정과 평화의 고조된 축제 속에 존재할 수 있다.

이기는 자와 지는 자 없는 여러 문화가 함께 만나 그 장려한 국제광장이야말로 새로운 천년의 문화상징일 것이다.

현실은 언제나 이긴자의 것

진자에겐 관심이 없다

스포츠정신의 뒷모습

친 사투리였다. 다른 지역은 도시국가를 세웠는데 이곳은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자연부락이었다. 사람들도 소박한 백성과 지주로 단순하게 구성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이 지역은 이민족의 침입이나 여러 세력의 갈등이 별로 없어서 그런 점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경기에 적합했던 것 같다. 또한 그리스 식민지는 지중해 연안에 널리 퍼져 있으므로 선수들이 모여 들기에도 좋은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

올림피아. 이곳이 제우스신전 축제의 한나로 올림피아 경기가 정기적으로 거행된 곳이다. 그것이 오랫동안 단절되었다가 근대 올림픽으로 세계적인

매학기 3000명의 신입생이 몰리는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스님이 학장으로 있습니다.

- ① 통신영남불교대학 T. 053)472-6268
TAPÉ 강의의 통한 불교의 체계적 공부(어렵지 않습니다) - 정규과정과 동일(포교사 시험볼 수 있음)
 - ② 인터넷 영남불교대학 (www.TVbuddha.com) T. 053)564-9355
교계최초! 영남불교대학의 인터넷 과정! 새로운 강의! - 6개월 되었음(포교사 시험볼 수 있음)
 - ③ 특종교재 : '새로운불교공부' '불자수행지침서' - 도서출판 좋은인연 (e-mail:414444@ownuri.net)
매학기 전국의 많은 불교대학에서 교재로 쓰고 있는 불교대학 전문교재입니다. (우학스님 저)
 - ④ 행사모집(선착순10명) T. 011)560-5968
21C 비전, 근본불교·세계불교·첨단불교를 지표로 삼고 있는 본 영남불교대학에서 참 인재를 찾습니다. 스님이 되고자 하는 분! 주위의 추천바랍니다. 공부와 수행위주의 행사생활.
 - ⑤ 불사안내 T. 053)474-8228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9월 20일 낙성식을 앞두고 7층 7보탑 대법당이 웅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와장 한장이라도 보시해 주신다면 비바람으로 부터 부처님을 더 든든히 지킬 수 있습니다. (반불보시기, 나한보시기, 포대화상보시기, 부처님보시기 등) 성의껏 불사금 받습니다. 불교인의 자부심을 지키는 도량이 되겠습니다.
- ▶ 동침계좌번호 · 국민은행 : 615-01-0534-000(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 농협 : 704-01-199831(영남불교대학)
· 대구은행 008-07-353722-001(영남불교대학) → 동침하신 후 연락주십시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053)474-8228

대한불교승가개혁참여 연대를 출범하면서

■ 취지(趣旨)

1천6백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한국불교는 지금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법(正法)과 정도(正道)는 땅에 떨어지고 사마외도 등이 청정 승단을 어지럽히고 있어, 이제 한국불교 특히 조계종은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이 없는 회생 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불교를 걱정하고 종단을 사랑하는 뜻있는 사부대중은 승가개혁의 기치를 들고 분연히 일어나 정법 안장의 해명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승가개혁 참여 연대를 발족하여, 승단의 점진적인 개혁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종단은 종건 약육으로 인하여 분규가 발생, 무수한 승려가 체탈정계 등에 처해지는 등 승가가 분열되어 그야말로 조계종은 양분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3선 반대 운동으로 인하여 종단분규가 촉발되었다고 할지라도, 종단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 있고, 한국불교 현재의 그릇됨을 개혁하고 밝고 청정한 미래를 열고자 승속의 불자들이 함께 모여 대한불교 참여연대를 출범코자 합니다.

■ 목적(目的)과 활동

승가개혁참여 연대에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승가의 위계질서 확립을 통한 승가화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며,

둘째는, 사찰운영의 합리화와 재정의 투명성을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셋째는, 종단의 발전과 개혁 및 화합을 위하여 종단의 전 분야에 걸쳐 개혁 방안을 종단에 건의하는 운동을 벌이며,

넷째는, 한국불교의 위상과 종단발전을 위한 수행과 포교하는 풍토조성을 위한 운동을 벌일 것을 다짐합니다.

누군가는 이 승단 청정정화불사를 해야만 한다는 사명감과 정의구현을 위해 뜻을 함께 할 사부대중은 가까이 동참하여 이 운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벌일 수 있도록 참여합니다. 지금도 세방의 선원과 토굴 그리고 강원에서, 아니면 도심의 포교당에서 수행과 교화에 전력하시는 고승대덕 스님들이시여! 저희들의 운동을 적극 성원하고 지도 권달하여 승단이 청정하여 지고 종단이 발전하는 승가개혁운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박도오	<자문위원>
집행위원회 최법매	표도철 스님 대봉 스님 이지호 스님 박정운 스님
사무총장 이지란	홍도일 스님 팽정오 스님 김동화 스님 백현초 스님
대변인 이선행	김익홍 이두석 류근복 김주호 강정기 김재홍 박미태형 이지은 노희재 권혁달 박승희 장여현 양무학심 이상재 최명순 전용만 김영생 양위찬
지문위원장 무영 스님	고행선 김자경 선덕형 오대호 한종호

서울 종로구 청진동 251번지 상공빌딩 202호
전화 : (02) 722-5208 팩스 : (02) 722-5209
※ 전국의 사부대중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제보를 받습니다.
불기 2544년 5월 22일

대한불교승가개혁 참여연대